

혁신형의사과학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진료에만 몰두하는 임상 의사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 의료기기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8개 병원을 선정하여 참여시키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한다^[1]. 의사 양성 병원으로 선정된 8개 병원은 한양대학교외, 고려대병원, 인하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 병원 등이며 한양대병원은 '선도혁신형'으로 지정됐다.

□

목차

- [1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무국](#)
 - [1.1 연구자 주도 혁신형 심포지엄](#)
- [2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 [3 각주](#)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무국

연구자 주도 혁신형 심포지엄

- 제1회(2021.02.19): 정밀의료 및 중개연구-젊은 의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주도 세부: 6세부 [이원준](#))^[2]
- 제2회(2021.04.23): 응급 중환자 진단과 치료의 융합 연구 최신 동향 (주도 세부: 2세부 [고벽성](#))^[3]
- 제3회(2021.06.25): 혁신형 의사과학자 R&D Workshop (주도 세부: 5세부 [윤영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 한양대학교병원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1단계 연구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2단계 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강과 연구자 선정 등 연구역량강화 지원
- (2020.06.19) 혁신형 의사과학자 7인의 1단계 연구사업 중간성과 발표회, 2단계 연구사업 예비 후보자 11명의 연구주제 발표회
- (2020.07.03) 남수연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의 특강 진행 ('임상 의사의 신약개발과 벤처회사 CEO의 경험')
- 2021년부터 본격화되는 2단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3인의 연구자를 선
 - 3인의 혁신형 의사과학자는 기존 연구자들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분야를 이끌 창의적 초융합 연구를 시작
 - 최성지 소화기내과 교수(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화기 이미지 분석 플랫폼 구축), 안성준 안과 교수(망막 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망막 질환 진단용 인공지능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이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의 질병 부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공기질 빅데이터와 국가 건강 빅데이터 연계 연구)
- ‘젊은 의사과학자’: 김미미 영상의학과 교수, 차치환 외과 교수 선정
- 관련기사: <뉴스H> 2020.07.13 [한양대학교병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3인 선정 ... 최성지, 안성준, 이현 교수](#)

각주

1. [↑](#) 2019년 7월 18일 발표. 7월 19일 전자신문 등 기사 참조
2. [↑](#) <뉴스H> 2021.02.04 [2021 제1회 연구자주도 혁신형 심포지엄\(혁신형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무국\)](#)
3. [↑](#) <뉴스H> 2021.04.16 [21년 제2회 연구자 주도 혁신형 심포지엄 포스터\(내과학교실\)](#)